

활력이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동103번지  
TEL. 3673-2851~3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tpa8769@chollian.net

## 어촌계획과 어항개발과 통합 '어촌어항과'로 명칭변경

### 해양수산부 정부조직 개편따라 1국 8과 감축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4일 해양수산부의 직제가 개편됐다.

해양수산부의 개편직제에 따르면 수산분야의 경우 수산정책국의 어촌계획과와 어항개발과가 통합되어 어촌어항과로 되고, 어업진흥국은 어업자원국으로 명칭이 변경,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심의관(3급)으로 축소되어 어업자원국 소속으로 됐다.

중전 어업진흥국의 자원조성과 양식어업과가 양식개발과로 통합되고 자원관리과가 신설됐으며 어업진흥과는 어업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지도육성과는 어업기술인력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산정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산분야의 직제는 중전보다 1개 과가 축소됐다.

해운항만분야는 항만정책국과 항만건설국이 통합, 항만국이 되고 해운선원국은 해운물류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리고 민자개발과와 항만건설계획과가 통합되어 민자계획과로 되고 항만물류과와 항만지원과가 해운물류국으로 통합 이관됐으며, 해운물류국에는 항만운영개선과가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이와함께 투자심사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합, 국제협력담당관과 국제기구담당관이 통합되어 국제협력과로 되고 원양어업담당관은 원양어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어업자원국으로 이

관됐다. 그리고 공보담당관과 비상계획담당관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직제는 1국 8과가 축소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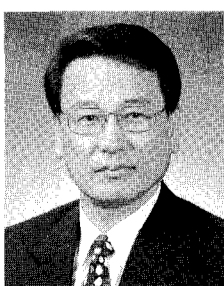
다. 해양수산부는 또 본부에서 36명, 소속기관에서 87명 등 모두 123명을 감축하고, 부산과 인천지방청의 항만공사

화되는 인력 375명과 종묘배양장 이양 61명 등 436명은 2000년에 감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세부내용

종 전	개 편	비 고
○ 공보관실 - 공보담당관	-	폐지
○ 국제협력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기구담당관 - 원양어업담당관	○ 국제협력심의관 - 국제협력과 - 원양어업과	어업자원국 소속 통합이관(어업자원국) 이관(어업자원국)
○ 안전관리관실 - 해사기술담당관 - 선박관리담당관	- 해사기술담당관 - 항로표지담당관	통합 이관(항만정책국)
○ 기획관리실 - 기획예산담당관 - 투자심사담당관 - 비상계획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통합 폐지
○ 해양정책국 - 해양환경기획과 - 해양환경관리과	- 해양환경과 - 해양안전과	명칭변경 "
○ 해운선원국	○ 해운물류국 - 항만물류과 - 항만운영개선과	통합이관(항만정책국) 한시조직(2과) 신설 통합
○ 항만정책국·항만건설국 - 민자개발과 - 항만건설계획과 - 항만물류과 - 항만지원과	○ 항만국 - 민자계획과 - 항만물류과	통합(명칭변경) 통합이관(해운물류국)
○ 수산정책국 - 어촌계획과 - 어항개발과	- 어촌어항과	통합(명칭변경)
○ 어업진흥국 - 어업진흥과 - 양식어업과 - 자원조성과 - 지도육성과	○ 어업자원국 - 어업정책과 - 자원관리과 - 양식개발과 - 어업기술인력과	명칭변경 " 신설 통합(명칭변경) 명칭변경이관(수산정책국)
○ 지방청 - 항무과 - 항만운영과 - 어촌지도과 - 해상무선표지소 - 해상무선표지통제소 - 어촌지도소	- 항무과 - 항만운영과 - 해양환경과 - 수산관리과 - 해상무선표지통제소 -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수산기술지도소	통합(부산, 인천청) 신설(11개청) 명칭변경(11개청) 통합(포항청) 신설(대산청) 명칭변경

## 해양수산부 차관에 洪承湧씨 차관보에 裴平岩씨



洪承湧 차관



裴平岩 차관보

나라 해양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승용 차관은 지난 82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해양연구소에 들어가 해양분야와 인연을 맺은 후 해양법 해양정책 등 해양관련 연구에 몸담아 온 인물로서 남극 세종기지 설립과 남태평양해저 광물권 확보 등의 실무를

추진했으며, 국제해양법 협상의 정부 대표로도 활약하였다. 저서로는 심해저자원개발론 등이 있으며 부인 황혜란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신임 홍승용 차관 약력 △49년 경기도 화성 생 △67년 경북고 △72년 고대 경영학과 △83년 서울대대학원 경영학과(석사) △88년 경희대대학원 경영학과(박사) △83년 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실장 △90년 해양정책연구부장 △96년 해양수산부장관 자문관 △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부는 4월 29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홍승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5월 18일 차관보에 배평암 국립수산진흥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홍승용 차관은 우리

## 제4회 바다의 날 기념식 마산서 개최키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 '제4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마산항 제5부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마산지역이 통영 장승포 거제 등 남해안의 주요 수산업 중심지를 끼고있는 데다 마산항이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은 점을 고려해 기념식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후 어업인 후계자 50여명이 어업지도선에

승선, 마산항 외해에서 넙치 조피불락 치어를 방류하며 이에 맞춰 강원도 고성, 충남 보령, 전남 완도 제주도 위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520만 마리의 치어를 동시에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회원수협이 참여해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어업인들의 건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업인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 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경상수지개선에 적지않은 비중을 담당,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체산업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수산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며, 수산업에서 어항은 없어서는 안될 기반시설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내용을 보면 정부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해양수산부내 1국 8과를 통폐합하고 무려 전체 정원의 14.1%에 이르는 55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단안이었지만 하필이면 소위 힘없고 뺏기는 바다 쪽이 조직개편의 주요 타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이 와중에 파편은 여지없이 어항업계에도 튀었다. '어촌계획과'와 '어항개발과'가 통합돼 '어촌어항과'로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속내는 모를 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꿩잡기식 부서 통폐합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수산업의 기본요소는 어항·어선·어장이 다. 이 가운데 어항은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의 기점으로서 가장 비중이 큰 기반시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산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어항건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어항업무가 단순히 어선의 정박항 개념이나 또는 시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산업 전반과 어항건설에 따른 조사·계획·관리 등의 특수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따서 아니 들 수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또한 수산업 환경도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수산업에 관한 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측면이 너무도 많음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일본의 수산청 조직은 어항부가 있고 그

밑에 계획과, 건설과, 방재해안과 등 3개의 과가 별도로 있어 각각 고유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처럼 매년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하면 여기에다가 붙여보기도 하고, 저기에다가 떼어놓기도 하는 등 기능과 업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확대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어항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매년 수산부문 전체 예산의 62%를 어항부문에 쏟고 있다는 사실은 어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단조롭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항의 기능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가. 바로 여기에 더욱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항은 지역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새삼 재인식되고 있는 문화와 관광산업의 선두 자원으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소득 향상과 다양한 레저 활동방안의 가장 특이한 소재로 어항과 바다가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항산업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과거 정부조직에서 보면 1961년 농림부 수산국 '어선어항과'가 신설된 이후 1966년 수산청 발족과 더불어 '어항과'로 승격된 후 지금까지 무려 30년 이상 나름대로 기능과 업무의 독자성을 인정받으며 존치돼 왔다.

그런 어항과가 시루떡 자르듯이 이리저리 붙었다 떼었다 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보다는 오히려 허탈한 심정이 앞서는 인지상정인지도 모른다.

어항어촌 업무를 합쳐 '국'으로 승격시켜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축소 조정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오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로 정부 조직개편안의 최대 피해자인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말 안해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바다는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질 그런 무형재산이 아니다. 자손만대 대대로 물려줄 가장 값진 재산 가운데 하나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의 하나이다.

바로 그런 사고가 어항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항산업



## 여수지역 어업인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1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을 격려한 후 홍인식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찬 간담회를 개최, 3일에는 일본 큐슈어객철도 이시이 요시타카 회장의 예방을 받고 부산-하카다간 여객선 운항 사업 협조에 감사를 표시, 7일에는 네덜란드 교통·공공 사업·수자원관리 상임위원회 핀스트라 하원의원 일행을 접견, 13일에는 여수지역을 방문하고 한·중어업협상과 관련 어업인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5월3일 해양수산부 신임 홍승용 차관을 방문하고 수산 현안에 대해서 논의, 20일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 계획연구'에 대한 정부 용역사업과 관련된 연구위원회의를 개최, 26일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어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5월7일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99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자문위원회에 참석, 11일에는 홍명 베트남 수산부 차관의 방문을 받고 양국간 수산분야 협력증진 방안과 상호 어업관련 사항을 협의.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7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제23차 이사회에 참석, 12일에는 CBS FM개국 기념행사에 참석,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전남 제2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석, 이어 제15회 청소년예방선도서예백일장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법의 날 행사에 참석, 4일에는 제2회 송원배 배구대회를 개최,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남양건설 창립 41주년 기념행사를 거행, 3일에는 전남도지사 구공관에서 열린 기관장 정기조찬회에 참석, 13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합동세무정보센터 개소식에 참석,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 19일에는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5일 오투기식품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9일에는 재경 부여성민회 야유회에 참석, 12일에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위 한 오찬에 참석, 13일에는 전경련 회장단 고문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울림피보조경기장에서 창립 51

주년 기념 체육행사를 개최.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5월12일 광양 요도준설토리기장 공사현장에 출장, 15일에는 동광가족체육대회를 개최.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3일 학생문화원세미나홀에서 열린 청소년문제 대책세미나에 참석, 2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여성자문회의 정세보고회의에 참석, 26일에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5월7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개인  
▲강국희씨 (유한회사신원종합건설 사장)  
▲공종덕씨 (현대지리정보 주식회사 사장)  
▲구분수씨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항만부)  
▲구자천씨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권영명씨 (대산녹화산업주식회사 사장)  
▲금종석씨 (전 신신상호신용금고 고문)  
▲김호집씨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3호 선장)  
▲김규한씨 (관동대학교 토목

소 서무과장)  
▲박규우씨 (동구레주식회사 명예회장)  
▲박당우씨 (육성산업주식회사 사장)  
▲박대현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연구위원)  
▲박원길씨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과)  
▲박임호씨 (주식회사연우기획 사장)  
▲박의환씨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차장)  
▲박해용씨 (본회 전무이사)  
▲박희열씨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8호 선장)  
▲배길중씨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과)  
▲백운영씨 (학교법인신일학원 이사장)  
▲서성룡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서승욱씨 (전 수산청 국장)  
▲성기현씨 (전 한국어업기술

이사)  
▲안희도씨 (한국해양연구소 연안공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엄세용씨 (주식회사문원사 관리과장)  
▲유영해씨 (한국어항협회 연구자문위원)  
▲유혁근씨 (주식회사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윤대현씨 (D. M상역 사장)  
▲윤병무씨 (전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사장)  
▲윤석환씨 (주식회사과라다이스여행사장)  
▲윤주영씨 (호태·진성문화회 회장)  
▲이광조씨 (극동전자정밀주식회사 사장)  
▲이기민씨 (현우중앙회 사무총장)  
▲이기홍씨 (삼성전자주식회사 상무)  
▲이동섭씨 (사단법인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

▲이중호씨 (주식회사범신기획 사장)  
▲이중희씨 (전 수산청 차장)  
▲이치훈씨 (선진수산 사장)  
▲이홍식씨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황주씨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이사)  
▲이희수씨 (전 수산청장)  
▲임승언씨 (김포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임승혁씨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사)  
▲임중재씨 (인천교역상사 사장)  
▲장봉환씨 (전 수산청 국장)  
▲전기원씨 (임택건설산업주식회사 회장)  
▲전충남씨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과)  
▲정공일씨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사장)  
▲정대연씨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정척희씨 (방산정밀화학주식회사 회장)  
▲정태승씨 (전 서울시 노원구청 부구청장)  
▲정해용씨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주홍장씨 (한국수산개발원장)  
▲차상희씨 (전 한국수산회 부회장)  
▲최치민씨 (주식회사달마 부사장)  
▲최홍윤씨 (전 주식회사달마 부회장)  
▲하성환씨 (전 한국어선협회장)  
▲황대흠씨 (우진수산주식회사 사장)  
▲황열성씨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  
▲황재수씨 (한국수산신보사 사장)

### 인사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장 박덕배 △국제협력담당관 박종국 △어업진흥과장 김영규 (5월3일)

### 귀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재철)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사장 박성태)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주식회사삼건사(회장 정덕용)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회장 정운삼)  
▲영진건설주식회사(사장 김규룡)  
▲주식회사삼양사(사장 염민웅)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사장 이환범)  
▲주식회사유일종합기술단(회장 이희운)  
▲주식회사세일종합기술공사(회장 주재욱)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회장 최석환)  
▲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사장 김영삼)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회장 정공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종식)  
▲강화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용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학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차석교)  
▲후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유형)  
▲포항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승웅)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중하)  
▲마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채열)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승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원장 박희도)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5월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 계획 연구'에 대한 정부용역사업과 관련, 연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 공학과 교수)  
▲김기수씨 (봉산탈출 인간문화재)  
▲김기욱씨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김남형씨 (제주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교수)  
▲김상목씨 (목천화원 사장)  
▲김성수씨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20호 선장)  
▲김성준씨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세열씨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 사장)  
▲김순도씨 (노들담항만청 한국사무소 대표)  
▲김용호씨 (주식회사세종전광 회장)  
▲김윤수씨 (전 국립수산진흥원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김일제씨 (주식회사달마 부회장)  
▲김정환씨 (전 주식회사청열실업 사장)  
▲김종규씨 (해양수산부 본부)  
▲김중근씨 (김중근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진열씨 (전 수산청 과장)  
▲김홍석씨 (주식회사유신코퍼레이션 항만부 부장)  
▲김홍배씨 (전 원예정보시스템 상임고문)  
▲나기항씨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상무이사)  
▲민경호씨 (펜타컴퓨터주식회사 고문)  
▲민병훈씨 (국립수산물검사

- 훈련소장)  
▲손팔원씨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장)  
▲송형준씨 (금호건설주식회사 자문위원)  
▲신언한씨 (전 상업은행 부장)  
▲안익성씨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항만부장)  
▲안의현씨 (서울마주협회 사무국장)  
▲안종관씨 (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상무이사)  
▲안창수씨 (영남건설기술교육원장)  
▲안형선씨 (전 수협중앙회

- ▲이상철씨 (전 대상특수제지주식회사 사장)  
▲이석규씨 (주식회사삼정 사장)  
▲이수연씨 (주식회사LG유통 상무)  
▲이왕렬씨 (국제전략경영연구원 원장)  
▲이인재씨 (주식회사범신기획 회장)  
▲이응규씨 (한국진성경영학술연구원장)  
▲이재현씨 (주식회사평원엔지니어링 사장)  
▲이정식씨 (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 의견

▲오창택씨 (본회 연구위원)는 오는 29일(토) 오후 2시 강북웨딩홀 신관 12층 사파이어실에서 화축을 밝힌다.

### 부음

▲강국희씨 (유한회사신원종합건설 사장)는 5월10일 모친상을 당했다.  
▲최일선씨 (본회 어항청소선 907호 선장)는 지난 23일 부친상을 당했다.

### 어항청소선 소식

6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6. 7~12 6.21~26	홍원 및 연안 모항, 안흥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어항 902호	6. 8~18	어라진 및 연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어항 903호	6. 7~12 6.21~26	녹동 시산 및 연안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어항 904호	6. 7~12 6.21~25	국동, 안도 미조, 불전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어항 905호	6. 7~12 6.21~26	능포 및 연안 광암, 외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어항 906호	6. 7~12 6.21~26	정자, 구룡포 구산, 사동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어항 907호	6. 7~12 6.21~26	삼척, 덕산, 장호 속초, 남애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바다환경보호  
캠 페 인

죽어가는 바다환경  
어업터전 무너진다

깨끗한 우리바다  
풍요로운 우리마을

# 속초 대포항 종합기능항으로 확대 개발

## 민자전환 사업성 평가나서

강원도 속초 대포항을 수산·관광기능을 갖춘 종합기능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속초시에 따르면 국고사업으로 추진중인 속초시 대포항 개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 수산기능 뿐만 아니라 어획물 유통 및 관광기능 등을 갖춘 종합기능항으로 개발키로 하고 민자전환에 따른 사업성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대포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1종어항으로 지정, 지역중심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속초시가 민자개발을 제안해 옴에 따라 사업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대포항 개발을 위한 금년도 예

산집행계획을 전면 보류하는 한편 속초시가 제안·추진중인 사업기본계획을 정밀 검토해 하반기중 세부개발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 개발계획을 보면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기본시설의 경우 정부 계획대로 시행하되 배후부지 규모를 2만 4,600평에서 5만 6,300평으로 대폭 확대, 이곳에 수산물 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시설, 호텔 오피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속초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개발공사를 설립, 총 900억원의 사업자금을 확충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말에 사업자 모집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대포항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총 440억원을 들

여 방파제 980m와 물양장 740m 등 어항 기본시설과 배후부지 2만 4,600평을 조성, 지역중심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연차적으로 25곳 선정

해양수산부는 25개 어촌을 지정, 연차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어촌을 체험관광마을로 육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체험어장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인문자원 및 산업생산과 연계된 관광자원과 생태유지적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발전을 도모해 나갈

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체험관광마을의 조성은 어촌계가 중심이 되고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어촌 체험관광마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전국 시·도가 추천한 12개 마을 중 올해에는 5개의 마을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전국에 25개 마을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고 독창성이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 광고하는 한편, 휴식공간 탈의실 세면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

##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 발간

한국어항협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어항의 설계 시공 및 공사관리의 지도서인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을 발간했다.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은 정부 용역사업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수행한 ‘어항공사시공관리기법연구’의 최종 성과물로서 어항의 설계·시공·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도서로 우리나라 어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항협회는 이 연구용역을 지난해 5월에 착수, 어항관련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년간에 걸쳐 완성했다.

어항공사는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대부분 시공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의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설

계조건, 시공방법 등이 동·서·남해 해역별로 각각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그 동안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서가 마련되지 않아 어항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어 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어항협회를 통해 이러한 어항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을 발간하여 실무자들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항공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은 5편 17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총 면수는 950면이다.

이다.

올해 어촌 체험관광 심사 대상 마을은 다음과 같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 인천 강화군 길면 초치1, 화성군 서신면 제부, 경기 안산시 선감 18통,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 서천군 마서면 송석, 전남 보성군 회천면 울포, 장흥군 회진면 덕산,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 북제주군 현경면 고산,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1.

## 어항시설 특별종합점검 실시

# 현장 안전관리 견실시공 유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우기, 태풍 등 재난 재해에 대비, 노후 어항 항만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어항 항만공사의 시공실태를 포함하여 해상교통 및 시설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점검과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 실시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취약요소를 발굴 개선, 대형 재해발생을 예방키로 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벌점제도와 우수 건설업체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부실소지를 없애 나간다는 목표아래 체크리스트를 작성, 철저한 시공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시공업체 대표들은 체크리스트 작성과 관련, 철근가공 및 조립시 철근상태와 규격을 점검하고 △거푸집에 틈은 없는지, 거푸집이 제대로 조여졌는지 등을 살피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의 배합 및 정확한 타설시간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생시 습윤상태 유지를 위해 양생포를 사용하고 초기강도가 생기는 최초 5일간 외부충격에 대한 보호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제작준비에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압축강도 등 재료에 대한 시험도 장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인공어초시설 견실시공 다짐

해양수산부 업계간담회서 강조

인공어초시설 시공업체 대표와 건설협회 시·도회장단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어초시설공사 견실시공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지난 30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로부터 인공어초시

설에 대한 현황 및 사후평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동안 부실문제가 제기돼 온 인공어초시설에 대해 업체대표들은 견실시공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인공어초시설 시공업체 대표들은 이와관련 근원적으로

## 항만시설확충에 9조8,000억 투자

2000~2004년 투자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7대 신항만 건설사업을 비롯한 일반항 정비사업에 총 9조8,000억원을 투입, 항만물동량 처리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항만시설 중기투자계획에 따르면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체선·체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부산신항, 울산신항 등 7개 신항만 건설과 기존 항만 시설정비에 총 9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이 기간중 전체 사업예산의 50.2%에 해당하는 4조9,000억원을

신항만 건설사업에 집중 투자, 지역 거점항만 부족으로 인한 물동량 처리제약을 완화키로 했다.

또 신항만 뿐만 아니라 일반항 건설사업에도 민자 및 외자 투자비율을 확대하고 전체 투자비 가운데 민자부문을 27.3%로 높여 국가재정부담 완화 및 투자효율을 제고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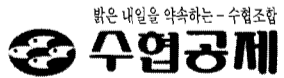
주요 항만별 투자계획을 보면 우선 부산신항 건설사업의 경우 이 기간중 민자 7,000억원을 포함 총 11개 선석규모의 컨테이너부두 조성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울산신항 건설사업에는 5,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간 1,8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건설키로 했으며 포항영일만에는 5,900억원을 투입, 연간 화물처리능력 400만톤 규모의 항만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함께 목포권 공단지원항만으로 개발·추진중인 목포신외항 건설에는 민자 1,783억원을 포함, 2,6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으며 인천북항, 평택항 건설사업에는 각 3,237억원, 4,7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투기장호안공사 등 항만기간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밖에 일반항 정비·확장을 위해 이 기간중 총 4조8,700억원의 사업비를 확충,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울산 등 5개 기존항만에 대한 시설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 냉방병

냉방에 약한 사람은 비타민 E를 보충하라

여름이 되면 소위 '냉방병'에 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은 몸이 차지면 곧 혈관이 긴장해서 가늘어지고 혈액 순환이 나빠지는 체질인 것이다.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반팔로는 있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타민 E를 먹도록 하면 좋다.

비타민 E는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듯이 혈관의 탄력성을 언제까지나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 비타민 E에 함유되어 있는 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부착되는 것을 막거나 씻어 내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비타민 E는 손발의 끝 같은 말초혈관의 혈액 흐름을 좋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E는 비타민제로 팔리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지용성비타민이 많은 호두 등 자연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우나로 환경변화를 극복  
현재 샐러리맨의 생활 환경인 회사 사무실은 물론 통근 전철이나 버스도 거의 냉방화되었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자연 기후의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 버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더위와 추위를 경험하면서 자연에 적응하는 능력을 몸에 익혀 간다. 폐나 기관지도 겨울의 차가운 공기나

여름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냉방화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면 피부나 폐가 단련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 감기에 걸리거나 몸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때때로 사우나를 하면 좋다.

땀을 흠뻑 흘리고 달아진 몸을 차가운 물에 담그면 피부는 바짝 죄어지고, 폐나 기관지는 덥고 습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차례로 호흡하며 저항력이 붙어 가는 것이다.

냉방 때문에 컨디션이 이상할 때는 마늘이 좋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영업사원같이 뜨거운 바깥과 차가운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그 급격한 온도차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게 된다. 즉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몸의 조절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 결과 손발의 피로감, 두통, 감기, 관절 통증, 요통, 식욕 부진 등 갖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냉방에서 오는 몸의 이상은 혈액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을 막으려면 제일 손쉽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늘을 먹는 것이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특히 골반이나 허반신 보온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우유에 마늘을 한 쪽 곁들여 먹으면 꽤 빨리 몸 컨디션이 좋아진다.

#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1)

## 第3章 基礎工

### 3.4. 사석공

#### 3.4.1 개 설

사석은 해중에서의 기초로서 비교적 안정하고 견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초재료로서 조달하기도 쉽고 운반도 용이하므로 방파제나 호안 등 구조물의 기초나 밀다짐에 이용되고 있다.

사석기초의 목적은 주로 기초지반의 요철정정, 상부 구조물의 하중분산, 지반의 세굴방지, 기초 천단고를 소정의 높이로 쌓아올리는 등이다.

재질은 단단·경고·치밀하고, 풍화동양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의 반입방법은 해상운반과 육상운반이 있고, 지역조건 등에 따라 가지각색이나 대체로 산지(또는 스톡야드)에서 직접 해상운반하는 일이 많다.

해상운반은 주로 거트선(199 G.T.형, 499 G.T.형등)이 사용되고, 육상운반은 덤프트럭이 이용되고 있다.

사석고르기는 주로 잠수부가 하는 데 얕은 곳에서의 고르기는 조석으로 인한 대기작업으로 석공이 하는 경우도 있다. 고르기의 종류는 그림 3.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 ① 기초고르기

기초고르기는 평탄성을 필요로 하는 본체구조물이 직접 접하는 곳에 시행한다. 고르기 정밀도는 대체로 고르기 기준면에 대하여 ±5cm이다.

#### ② 속고르기

속고르기는 고르기면에 대하여 철부는 제거하고 요부는 보충하면서 고르는 것으로서 대략 면이 가지런하도록 고른다. 고르기 정밀도는 고르기 기준면에 대하여 ±10cm, ±30cm 및 ±50cm의 3종류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10cm는 안벽전면의 천단고르기, ±30cm는 피복석의 하면고르기, ±50cm는 이형블록 난적의 하면고르기이다. 선형 마운드(mound) 고르기에서는 ±70cm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③ 피복석 고르기  
피복석 고르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3.5 피복 및 밀다짐공)에서 설명한다.

#### 3.4.2 표준적인 시공순서

사석공사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는 그림 3.4.2에 도시한 바와 같다. 사석을 투입하는 곳의 수심이 얇을 경우에는 앞바다 거트선에서 태선으로 옮겨서 크레인이 부착된 태선 등으로 투입한다. 육질경우 시공순서는 (2) 해상운반에서 (3) 위치표시 사이가 그림 3.4.3에서 보는 것처럼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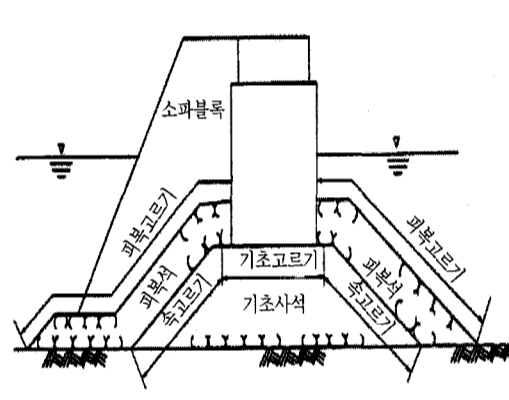


그림 3.4.1 사석과 고르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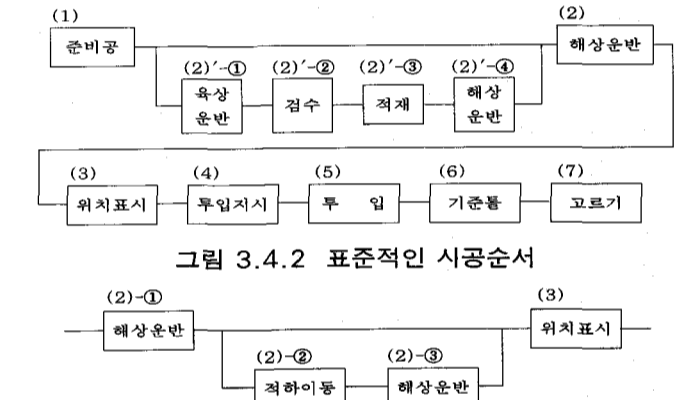


그림 3.4.2 표준적인 시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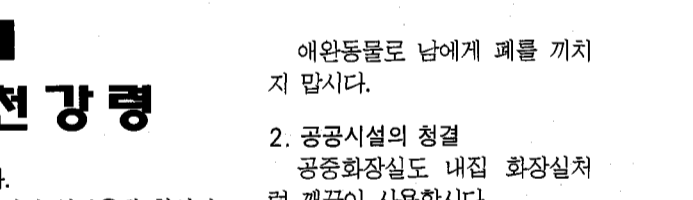


그림 3.4.3 적하할 경우의 시공순서

## 친절 분야

- 1. 친절한 인사**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멀리서도 인사합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가벼운 인사를 합니다. 여러번 마주칠 때는 가벼운 목례를 합니다. 악수는 정중하게 합니다.
- 2. 친절한 전화 통화**  
통화는 공손하게 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통화시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벨이 울리면은 되도록 빨리 전화를 받습니다. 큰소리로 통화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통화는 되도록 간단하게 합니다. 수화기는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이 부재시 메모를 남겨 전화통화 남비를 줄입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도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 3. 친절한 언어 생활**  
비어 및 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을 부를 때는 "여보세요"를 사용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친한 사람끼리도 경어(공용어)를 사용합니다.

- 4. 친절한 배려**  
노약자·장애인 보호선은 비워둡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남에게 피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길을 묻거나 도움을 청할 때에도 예절을 지킵니다.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을 때에는 오른쪽에, 앞서서 지나치고자 할 때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 함께 탑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단힘 버튼을 쓰지 않습니다. 뱃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줍니다. 무선호출기(삐삐)와 이동전화기(핸드폰)를 울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 5. 외국인에 대한 친절**  
편견 없는 시선으로 대합니다. 감사와 사과의 표현을 정중하게 합니다.

## 문화시민 생활윤리

### 문화시민 운동 세부 실천강령

남이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지하게 합니다. 친절하고 성의 있게 응대합니다.

## 질서 분야

- 1. 공중질서**  
바른 줄서기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경기관람을 바르게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킵니다. 공중전화를 바르게 이용합니다. 공연장에서 질서를 지킵니다. 암표를 사지 않습니다.
- 2. 교통질서**  
차는 우측, 사람은 보도에서는 좌측,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합니다.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차도에 내려서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운전중 안전수칙을 지킵니다. 차밖으로 오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행자를 배려하며 운전합니다. 교통사고시에는 질서있게 행

- 3. 행락질서**  
과음과 과성방가는 삼갑니다. 자연을 소중하게 보존합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 4. 상거래 질서**  
강매행위를 하는 업소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건값을 턱없이 깎지 말고, 상인과 소비자간에 정찰제 관행을 만들어 갑니다. 영수증을 주고 받습니다. 값싸고 편리한 물건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합니다. 부당한 상거래로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신고를 합니다.
- 3. 환경보존과 청결**  
유원지를 청결하게 합니다. 환경보존으로 경계를 살립니다.
- 4. 흡연과 음주 예절**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여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담배꽂이를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습니다. 담뱃재를 아무 데나 털지 않습니다. 술잔을 억지로 돌리지 않습니다. 폭탄주 안마시기 및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제 2 건국운동

## 제 2 건국운동